

## 고대 동아시아 정음사상의 수용과 변용

심 소 희\*

### <目次>

- |                   |                   |
|-------------------|-------------------|
| I. 서론             | IV. 조선에서 변용된 정음사상 |
| II. 인도에서 배태된 정음사상 | V. 결론             |
| III. 중국에 수용된 정음사상 |                   |

### I. 서론

스웨덴의 한학자 버나드 칼그렌(Bernhard Karlgren, 1889-1978)은 서양의 역사비교언어학(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의 방법을 중국어에 접목시켜 ‘중국어음운학(Chinese Phonology)’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칼그렌은 중국어 음운사를 ‘태고한어(太古漢語, Proto-Chinese)’, ‘상고한어(上古漢語, Archaic Chinese)’, ‘중고한어(中古漢語, Ancient Chinese)’, ‘근고한어(近古漢語, Middle Chinese)’, ‘노관화(老官話, Old Mandarin)’로 나누고, 각 시기별 음절구조를 근거하여 재구음체계를 설정하여 중국어가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sup>1)</sup> 칼그렌의 이러한 연구방법은 한 언어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검토하여 그 언어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중국 언어 연구의 차원을 보다 과학적인 학문의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서울: 통나무, 2000. 19쪽.

가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칼그렌의 연구방법은 중국 언어학 연구의 모범이 되어 후세 학자들은 보다 많은 자료를 보완하여 시기별로 구분하고 통시적 각도에서 중국어 음운변천 규칙을 증명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의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현대 언어학의 관점과는 판이한 개념과 인식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양의 언어연구는 ‘어음 변화’를 전제하여 시기별로 어음 변화의 근거와 규칙성을 찾아 어음의 면모를 구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어음 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현실 음보다는 성현의 의도가 담겨있는 옛날 음을 정음(正音)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어음의 변화로 전해진 와음(訛音)은 수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어규정> 총칙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의 언어(방언)를 표준어(標準語, Standard language)로 지정하고 있다.<sup>2)</sup> 하지만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각 왕조에서 편찬되었던 운서는 “남북의 옳고 그름과 옛날과 오늘날 모두 소통될 수 있는 어음(南北是非, 古今通塞)”을 기치로 세상의 모든 어음을 망라하는 음운체계를 추구하였다. 특히 북송대에 성립된 성리학(性理學)에서는 만물의 생성원리에 따라 세상의 모든 어음체계를 구현하고, 五音(喉牙舌齒唇)의 발음부위에서 발생하는 각 어음의 구성요소가 五行(水·木·火·金·土), 五時(冬·春·夏·秋·季夏), 五聲(羽·角·徵·商·宮), 五方

2) 많은 나라에서 자국어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영어’에는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명문화된 표준어가 없지만, ‘중국’은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을 문법 규범으로 삼는다”는 표준중국어(普通話)를 설정하였다. 그 외 ‘독일어’는 ‘오스트리아 표준독일어’와 ‘스위스 표준독일어’가 발음이 각기 다르더라도 철자와 문법이 맞으면 모두 표준어로 간주되고, ‘스페인어’의 경우, 각 국가별 표준스페인어가 각 지역별, 각 나라별 차이가 있어서 ‘표준 스페인어’는 ‘유럽식’과 ‘아메리카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北·東·南·西·無定位), 五臟(肝·心·脾·肺·腎) 간에 필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sup>3)</sup> 이러한 고대 동아시아의 어음에 대한 사유 방식은 현대 언어관에서 볼 때 매우 생소하고 납득되기 어렵다.

하지만 고대 동아시아의 언어자료는 반드시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는 문헌학적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고, 오늘날의 눈높이에서 고대 문헌자료의 가치를 파악하여 시대착오적인 판단과 건강부회의 해석을 낱발하지 않도록 고대 동아시아 문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고대 동아시아의 언어연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음사상’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인도에서 태동한 ‘정음사상’과 ‘어음 원리’는 중국에서 “운서(韻書)”와 “운도(韻圖)”이 편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세종은 문화적 역량을 집중시켜서 발음부위와 발음 방법을 상형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정음사상’을 구현하였다. 인도에서 조선에 이르는 ‘정음사상’의 수용과 변용에 이르는 일련의 문헌학적 검토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언어자료에 대해 심도있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II. 인도에서 배태된 정음관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씌여진 《베다(veda)》는 브라마

3) 《訓民正音解例本》〈制字解〉: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喉窻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颯,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唇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然水乃生物之源, 火乃成物之用, 故五行之中, 水火爲大. 喉乃出聲之門, 舌乃辨聲之管, 故五音之中, 喉舌爲主也. 喉居後而牙次之, 北東之位也. 舌齒又次之, 南西之位也. 唇居末, 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是則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교의 최고(最古) 경전이였다. 고대 인도인들은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Brahman)과 언어(Vāk 혹은 Śabda)를 동일시하여 《베다》에 수록된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신의 말씀’으로 신격화하였다. 즉 《베다》는 신이건 인간이건 ‘특정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apauruṣeya)’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있는(utpattika)’, ‘영구불변한(śabdaintyatva/聲常住) 것’이므로 오염되고 와전된 자연어(prakṛti)와는 달리 ‘오류가 없는 절대적 진리의 원천(sabda-pramāṇa/聖言量)’으로서 그 말과 의미는 아무에게나 인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4)</sup>

그리하여 제사를 집전하였던 최상 계층인 브라만 계급의 주요 임무는 신성한 《베다》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또 그 언어가 와전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일이었다.<sup>5)</sup> 특히 브라만들은 신에게 발원(發願)하기 위해 성전의 방대한 내용을 글자 수에 맞추어 각 행을 일정 배열로 끊어 운율에 맞추었고, 언어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많은 언어이론을 고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전(聖典)을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하여 후대에 전수할 수 있었다.<sup>6)</sup>

기원전 5세기 경 빠니니(Paṇini)는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언어이론을 정리하여 《아슈타다이(Aśṭādhyāyī)》를 저술하였는데, 8장에 걸쳐서 문법 기술에 필요한 용어들과 경전(sūtra) 운영의 규칙들을 제시한 후, 문장 생성의 기초단위로서 어근, 어간, 접사 등을 소개하고 이를 결합하여 단어(pada)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sup>7)</sup> 특히 말소리를 음소로 구분하고, 말소리를 조음되는 부위와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sup>8)</sup>

4) 이지수, <불교의 언어관-언어에 대한 철학적 성찰>, 《과학사상》 35호, 서울: 범양사, 2000, 34-62쪽.

5) 윤희조, 《불교의 언어관》,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2, 23-33쪽.

6) 김형엽, 《인간과 언어-언어학을 통해 본 서양철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11-18쪽.

7) 최종찬, <빠니니의 《아슈따다이》: 구성적 특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제16권 2호, 2010, 111-135쪽.

8) 강성용, 《빠니니 읽기-인도 문법전통의 이해》, 서울: 한길사, 2011, 126쪽.

	과열음 stop / plosive				비음 nasal
	무성 surd / unvoiced		유성 voiced		
	무기	유기	무기	유기	
kaṅṭhya 후음	क ka	ख kha	ग ga	घ gha	ङ ṅa
tālavya 구개음	च ca	छ cha	ज ja	झ jha	ञ ña
mūrdhanya 권설음	ऋ ṛa	ठ ṭha	ड ḍa	ढ ḍha	ण ṇa
dantya 치음	त ta	थ tha	द da	ध dha	ध na
oṣṭhya 순음	प pa	फ pha	ब ba	भ bha	म ma

고대 인도인들의 특이할 사항은 신들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느라 성전의 내용보다 형태적인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그들은 말소리 그 자체에 성스러운 힘이 있다고 믿어서 말소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sup>9)</sup> 예를 들어 부처와 보살의 서원(誓願)이나 덕이나 가르침을 간직한 비밀의 어구인 ‘진언(眞言, mantra)’<sup>10)</sup>은 산스크리트어로 그대로 외우는 불교 주문인데 그 의미를 굳이 번역하지 않았다. 그저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진언을 외우면 그 진언에 응하는 여러 가지 공덕이 생겨나고 세속적인 소원의 성취는 물론 성불도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불교 의식집에서 ‘진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는데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진언을 예로 들면,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Namo'mitābhāya) 관세음(觀世音, Avalokiteśvara)보살(菩薩, Bodhisattva), 옴마니 반메훔(唵麼呢鉢鉢吽, Ṡmmanipadmehūṃ)<sup>11)</sup>,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보리 사바하(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gate gate pāragate pārasaṃgate bodhi svāhā)<sup>12)</sup>,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

9) 김형엽, <인도의 언어이론과 파니니>, 국제언어인문학회: 《인문언어(Lingua Humanitatis)》 Vol.2. 2001, 123-137쪽.

10) 산스크리트어 ‘만트라(mantra)’. 한문으로는 ‘만달라(曼怛羅)’, ‘만다라(曼荼羅)’ 등으로 음사되고 신주(神咒), 밀언(密言) 등으로도 번역된다.

11) 《천수경(千手經)》에 수록.

12) 《반야심경(般若心經)》에 수록.

바하(修里修里 摩訶修里 洙修里 沙波訶, sri sri maha sri su sri svaha)<sup>13)</sup> 등 산스크리트어로 암송하는 언사들은 신비로운 위력을 가진 주문으로 인식하였다.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현장(玄奘, 602~664)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의거하여 불경을 연구하고자 실제로 인도에 가서(627~645) 수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위대한 번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A.D. 600년 경에 생존하였던 현장이 기원전 산스크리트어로 씌여진 불경을 번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현장보다 앞서 서역에서 온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도 아무리 서역인이더라도 기원전의 산스크리트어로 씌여진 범문을 해독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것이다. 현장은 한역 불경에 대해 “오종불번(五種不翻)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sup>14)</sup>

첫째, 다라니(陀羅尼)는 심오한 뜻이 있으므로 의역하지 않고 범문을 그대로 음역한다.

둘째, 바가범(薄伽梵 bhagavat)처럼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옮길 수 있는 다의어는 번역하지 않는다.

셋째, 염부(閻浮 jambu) 나무처럼 중국에 없는 사물은 의역하지 않는다.

넷째, 아누보리(阿耨菩提 anuttarabodhi)처럼 습관적으로 음역해왔던 것은 의역하지 않는다.

다섯째, 반야(般若 praj)를 “지혜(智慧)”로 옮기고 석가모니를 “능인(能人)”으로 번역하면 너무 가벼운 느낌을 갖게 되므로 의역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으로 불경을 ‘음역(音譯)’하니 후세 사람들은 더더욱 불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난해한 경전도 되풀이하여 여러 번 소리

13)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崖大悲心陀羅尼經): 천수경(千手經)》〈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에 수록.

14) 서상규 편저, 《불교와 한글, 한국어》 〈실담문자의 동아시아 전래와 한글〉, 서울: 언어정보연구원, 2017, 283-302쪽.

내어 읽으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독경(讀經)’을 중시하였으며, 불경의 음성과 음률을 통해 중생을 교화시킨다는 종교적 기능을 강조하여 “범패(梵唄)” 등의 불교음악이 융성하기도 하였다.<sup>15)</sup>

이와 아울러 산스크리트어만이 ‘성어(聖語)’라는 개념이 출현하였다. 불교에서는 오늘날의 세계는 훼멸(毀滅)의 겁재(劫災)인데 범문만이 다음 겁의 세계로 영원히 유전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언어와 문자는 소멸된다고 하였다. 불교의 주장대로라면 한자로 쓰인 문헌들은 장래 겁재를 당할 때 전부 훼멸되는 것이다.<sup>16)</sup>

아찰라(阿察囉)라는 것은 당(唐)에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다. 혹은 상주(常住)라고 하기도 한다. 상주(常住)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범자(梵字)의 경우에만 그러하고 다른 나라의 문자는 다르다. 무슨 뜻인가. 동이(東夷), 남만(南蠻), 서융(西戎), 북적(北狄) 등 여러 오랑캐의 문자는 소성(小聖)이나 예재(睿才)가 언어를 따라 문자를 만들었는데 훗날 겁을 만나 삼재(三災)를 지내면 모두 훼멸되므로 상존할 수 없다. 오직 범문만이 범천왕의 위아래로 좇아 전겁에서나 후겁에서나 모두 범천왕이 말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백겁을 거쳐도 차이가 없으므로 상주(常住)라고 말하는 것이다.<sup>17)</sup>

특히 수행(修行)의 삼밀문(三密門)의 하나라고 하여 교의상 언어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던 밀교(密敎)에서는 음의 분류, 발음 부위 및 방법에 대해 정밀한 정의와 묘사를 하고 산스크리트어의 자음과 모음 및 조합 방법을 유기적으로 배합한 《실담장(悉曇章)》이 산스크리트어의 음절표일 뿐

1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불교문학과 불교언어》, 서울: 이회문화사, 2002, 99-134쪽.

16) 심소희, 《한자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97쪽, 재인용.

17) 혜림(慧琳, 737~820),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25, 〈범경조(梵經條)〉: “云阿察囉, 唐云文字, 或云常住. 言常住者梵字獨得其稱, 諸國文字不同此例. 何者, 如東夷, 南蠻, 西戎, 北狄及諸胡國所有文字, 並是小聖睿才隨方語言演說文字, 後遇劫盡三災起時, 悉皆磨滅, 不得常存. 唯有此梵文隨梵天王上下, 前劫後劫皆用一梵天王所說, 設經百劫亦不差別, 故云常住.”

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음의 총목이라고 하였다.<sup>18)</sup>

오른편의 12자(즉, ka, ka-, ki, k-l, ku, ku-, ke, kai, ko, kau, kam, kah는 가(迦, ka) 자(字)의 전음(轉音)이다. ‘가(迦)’ 자모 하나가 12자를 조합해낸다. 이처럼 (34개의) 하나하나의 자모가 각각 12자를 조합해내어 한번 회전하면 408자가 조합된다. 만약 이합(二合)·삼합(三合)·사합(四合)된 겹자음이 더해지면 13,872자가 생기게 된다. 이는 《실담장(悉曇章)》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고 영구불변하는 자이다. 삼세(三世)의 불교법사들은 모두 이 글자로 법리를 강설하므로 성어(聖語)라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범어(凡語)인데 정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모두 아류(阿流)를 좇은 글자일 따름이고 이러한 언어를 따르는 것은 망어(妄語)이고 무의어(無義語)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어(聖語)를 따른다면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sup>19)</sup>

즉 34개의 자음이 12개의 모음과 결합하여 408개의 음절을 만들어내고 다시 겹자음 음절을 만들게 되면 13,872종의 조합을 이루는데 바로 이 13,872개의 음절을 ‘성어(聖語)’라고 하였다. 그 외의 어음은 모두 보통의 평범한 언어에 속하는데 이는 영구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교의 교리를 강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산스크리트어만이 ‘성어(聖語)’라는 언어사상은 인도에서 배태한 ‘언어이론’과 함께 ‘불경(佛經)’에 실리어 주변 지역에 전파되었고 심원한 영향력을 끼쳤다.

18) 岑麒祥, 〈古印度人對於語言的看法和語法分析〉, 《語言學史概要》, 北京大學出版社, 1988, 10-16쪽.

19) 空海(774~835), 《梵字悉曇字母并釋義》: “右十二字者一個迦字之一轉也。從此一迦字母門出生十二字, 如此一一字母各各出生十二字, 一轉有四百八字。如是有二合三合四合轉, 都有一萬三千八百七十二字。此悉曇章本有自然真實不變常住之字也。三世諸佛皆用此字說法, 是名聖語。自餘聲字者, 是則凡語也。非法然之道理, 皆隨類之字語耳。若隨順彼言語, 是名妄語, 亦名無義語。若能隨順聖語, 即得無量功德。”

### III. 중국에 수용된 정음사상

동한(東漢) 말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표음문자인 산스크리트 문자의 영향으로 비로소 한자의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질적인 언어체계인 산스크리트어와 접촉하고 또 산스크리트 문자로 쓰인 불경을 중국어로 옮기면서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의 구체적인 특성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산스크리트 문자는 각 글자음의 단위가 체문(體文, 자음)과 마다(摩多, 모음)로 나뉘는데 이 개념이 중국 고유의 쌍성(雙聲)과 첩운(疊韻)의 원리에 응용되어 음을 표기하는 데에 있어 ‘반절(反切)’이 발명되었다. 또한 불경을 독경(讀經)할 때 소리의 높이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는 불경 낭송법에 착안하여, 폐쇄음 받침이 없는 글자를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으로 구분하고, 폐쇄음 받침의 글자는 따로 입성(入聲)으로 설정하여 ‘성조(聲調)’가 발명되었다. 아울러 통일 왕조를 통치하는 데에는 표준 한자음을 제시해주는 ‘운서(韻書)’의 편찬이 요청되어, 위대(魏代)의 이등(李登)이 《성류(聲類)》, 진대(晉代) 여정(呂靜)이 《운집(韻集)》을 편찬한 이래 남북조 시기에는 많은 운서가 편찬되었다. 안지추(顏之推, 531~590?)는 《안씨가훈(顏氏家訓)》〈음사편(音辭篇)〉에서 “이로부터 음운(音韻)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는데 논자마다 자신의 방언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조소하니 궤변일 따름으로 누가 옳은지 알 길이 없다.”<sup>20)</sup>고 하면서, 운서에서 갖추어야 할 표준음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왕의 도읍을 기준으로 각 지방의 방언을 참고하고 고금음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이를 절충하여 합리적인 음운을 헤아려본다면 결국은 금릉(金陵)과 낙하(洛下) 지방의 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sup>21)</sup>

20) 《안씨가훈(顏氏家訓)》〈음사편(音辭篇)〉: “自茲厥後, 音韻鋒出, 各有土風, 遞相非笑, 指馬之論, 未知孰是.”

21) 위의 책, “共以帝王都邑, 參校方俗, 考覈古今, 爲之折衷, 權而量之, 獨金陵與洛下耳.”

안지추가 말하는 금릉(金陵)과 낙하(洛下) 지방의 음은 역사적 내원을 고려해볼 때 고낙양음계(古洛陽音系)를 의미한다.<sup>22)</sup> 즉, 오월음(吳越音)이 섞이기 전의 남방음[고낙양음(古洛陽音)] 또는 북방 이민족<sup>23)</sup>의 영향을 받기 전의 북방음[고낙양음(古洛陽音)]을 표준음으로 정하여 남북 방언의 변질된 음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현존하는 최초의 운서는 수대(隋代) 육법언(陸法言)이 편찬한 《절운(切韻)》(601)이다. 흔히들 《절운서》의 “소해와 안지추가 대부분 결정하였다(蕭顏多所決定)”는 구절로 《절운》 편찬에 안지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짐작하여 안지추와 육법언의 언어관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육조 시기 문인들의 언어관을 대변하는 안지추와 수당(隋唐) 이후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였던 육법언이 《절운》에서 제시한 표준음의 기준은 엄밀히 큰 차이가 있다. 육법언은 ‘남북의 방언과 고금음의 차이를 모두 고려한다.(南北是非, 古今通塞)’는 기본 전제에서 고금음과 방언음을 절충하고, 여러 운서 작자들이 생각하는 운류의 분별을 모두 포용하여 한 지방 한 시대의 어음 체계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종합 음계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남북조 시기 문인들이 각 방언에 근거한 한자음(各有土風)을 근거 삼은

22) 주평왕(周平王)이 동천(東遷)한 때(700 B.C.)로부터 진(秦)이 육국(六國)을 통일할 때까지 500여 년간 낙양(洛陽) 부근의 중원 일대가 정치,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동한(東漢)이래 수백 년간 도읍지로 있었기 때문이다. 서진(西晉, 269~316) 말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 한인들은 남쪽으로 쫓겨나 금릉(金陵)에 다시 도읍을 정하고, 육조(六朝) 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 정치 문화의 중심이 낙양에서 금릉(金陵)으로 옮겨지기는 했어도 그 상류 계층은 모두 낙양에서 온 이주민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양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낙양음계에 기초한 금릉음(金陵音)도 이삼백 년의 세월이 흐르자 남방 방언의 영향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북방의 낙양음 역시 주변 호인어음(胡人語音)의 영향으로 변질되어 두 개의 음은 점차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23) 위진남북조시대 흉노(匈奴), 선비(鮮卑), 갈(靺), 강(羌), 저(氐) 등 북방 이민족들은 화북 지방에 16국을 세웠는데, 16국 중 전량(前涼), 서량(西涼), 북연(北燕)은 한족 왕조에 속하며 나머지 전조(前趙), 성한(成漢), 후조(後趙), 전연(前燕), 전진(前秦), 후연(後燕), 후진(後秦), 서진(西秦), 후량(後涼), 남량(南涼), 북량(北涼), 남연(南燕), 북하(北夏) 등 13국은 이들 다섯 이민족이 세웠다.

것과 달리 육법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종합적인 한자음 체계를 구상하게 된 것은 필자가 추측하건대, 당시 시대적 상황과 특징에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조(隋朝)의 고위층 인사들은 대부분 선비족이었고 《절운(切韻)》의 편찬을 주도하였던 육상(陸爽)과 육법언(陸法言) 부자도 선비족 출신의 고위 관료이었다.<sup>24)</sup> 수(隋) 문제(文帝) 양견(楊堅, 541~604)<sup>25)</sup>은 기존의 문벌 귀족의 기득권에 맞서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선거제(과거제의 전신)를 최초로 시행하였는데<sup>26)</sup> 과거를 실시하기 위해선 먼저 새로운 규범으로 설정된 운서(韻書)를 편찬해야 했다. 즉, 남북조 시기 문인들은 어느 지역의 음운(各有土風)을 기준으로 삼아 운서를 편찬하여 “음운봉출(音韻蜂出)”을 이루었지만, 수대는 어느 시기, 어느 장소가 아닌 “남북시비(南北是非), 고금통색(古今通塞)”의 새로운 개념으로 제작 방침으로 정하여 운서를 편찬한 것이다.

24) 萬繩楠, 《魏晉南北朝文化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430쪽: 陸侯(392~458)의 성씨는 步六孤氏이고 代郡人(오늘날 山西省 代縣)로서 선비족이다. 《魏書》와 《北史·陸侯傳》: “陸侯는 代人이다. 증조부는 干이고 조부는 引이므로서 대대로 부락을 거느렸다. 아버지는 突로서 太祖때 정벌에 나서서 전공을 세웠다. ……陸侯에게는 열 두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魏書》의 기록에 馘, 石, 跋, 歸, 尼, 麗, 頽, 陸成, 龍成, 騏麟의 아홉명 아들의 기록이 보인다. 陸騏麟에게는 高貴과 順宗의 아들이 있었는데 陸順宗(孟遠)의 아들이 概之이고, 陸概의 아들이 爽이다. 《北史》의 기록에 따르면 陸爽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9세에 학문을 시작하여 날마다 이천여 문장을 암송하였다. 수왕조에서 左庶의 아들 宇文愷 등과 《東宮典記》 70권을 편찬하였다. 陸爽의 아들이 法言이므로 陸法言은 선비족 步六孤侯의 후손인 것이 분명하다.(陸侯, 代人也. 曾祖干, 祖引, 世領部落. 父突, 太祖(道武帝拓跋珪)時率部民隨從征伐, 數有戰功, 拜厲威將軍, 離石鎮將. 陸侯十二子, 魏書記有馘, 石跋, 歸, 尼, 麗, 頽, 陸成, 龍成, 騏麟九子. 陸騏麟二子: 高貴順宗. 陸順宗(孟遠)子概之, 陸概之子爽. 北史記陸爽少聰敏, 年九歲就學, 日誦二千餘言. 隋時曾與左庶子宇文愷等撰東宮典記七十卷, 陸爽子法言, 陸法言爲鮮卑步六孤侯之後, 可以明矣.)”

25) 양견의 선비성(鮮卑姓)는 ‘普六茹’였는데 정권을 잡은 후, 양씨로 개명하였다.

26) 남북조 시대는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을 따라 귀족들에게 관리 임명권이 있었다. 수(隋) 문제(文帝)는 과거(科擧)를 시행하여 지방호족의 세습적인 임관이 아니라 과거시험의 결과로 황제가 관리 임명권을 갖도록 하였다. 과거 제도는 당에서 물려받아, 당의 300년 역사를 지탱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둘째, 서진(西晉)의 멸망(317) 이후, 약 260년 간의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킨 수(隋) 문제(文帝, 재위 581~604)는 북주(北周, 557~581) 무제(武帝, 543~578)가 단행하였던 폐불(廢佛)<sup>27)</sup> 정책에 반하는 ‘불교 부흥 정책’을 실시하여 인도불교를 통합하여 더욱 중국 불교를 중흥시켰다.<sup>28)</sup> 그리하여 불경을 담은 산스크리트어만이 유일한 ‘성어(聖語)’라는 불교의 언어관을 융합하는 진일보한 정음사상이 요구되어 중전의 ‘고낙양음’에 기초한 표준음이 아닌 “남북 사이의 옳고 그름이나 고급 사이의 통하고 막힘을 논할 수 있는(論南北是非, 古今通塞).” 총괄적인 기준의 한자음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sup>29)</sup>

《절운》이 편찬되었을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절운》의 이러한 제작 방침이 ‘고낙양음’을 중시하였던 문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sup>30)</sup> 그러나 수·당 시기를 거치면서 육조(六朝)의 문벌 귀족 계층이 무너져 더 이상 고낙양음을 표준음으로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당대(唐代)부터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 시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대부가 신흥 계급으로 등장하자, 종합 체계의 《절운》이 비로소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절운》이 관운(官韻)의 지위를 점차 확보해가면서 이전의 육조 시기

27) 중국에서 있었던 불교 탄압을 말한다. 북주의 3대 무제(543~578)는 574~577년간 폐불이 단행되었는데 당시 노장, 주역의 삼현학이 유행하였는데 불교가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정권과 결탁하려다가 도리어 사찰을 몰수당하고 승려가 군인으로 동원되었다. 이영석, 안순형(2006), <북위말(北魏末)의 정치 동향과 불교에 관한 연구>, 중국사학회: 《中國史研究》 제45호, 77-110쪽.

28)鎌田茂雄 저, 장휘옥 역, 《中國佛敎史》, 서울: 장승, 1992, 453-454쪽.

29) 수문제(隋文帝) 개황(開皇) 1년(581년), 소해(蕭詒)·안지추(顔之推)·유진(劉臻)·위언언(魏彥淵)·노사도(盧思道)·설도형(薛道衡)·신덕원(辛德源)·이약(李若) 등 당시의 저명한 문인이자 고급 관료들이 육상(陸爽)의 집에서 한자음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육상의 아들인 육법언(陸法言)은 요강을 기록해두었다가 《절운》(601년)을 편찬하였다.

30) 《절운(切韻)》은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도 실려 있지 않으며 《구당서(舊唐書)》<경적지(經籍志)》와 《신당서(新唐書)》<예문지(藝文志)》에 비로소 육자(陸慈) 《절운(切韻)》 오권(五卷)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 운서는 모두 소멸되었고, 《절운》(601)의 체제 및 운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증보판으로서 당대(唐代) 《당운(唐韻)》(732) 및 송대(宋代)의 《광운(廣韻)》(1007), 《집운(集韻)》(1039), 금대(金代) 《오음집운(五音集韻)》(1212), 원대(元代)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1297), 명대(明代)의 《홍무정운(洪武正韻)》(1375), 청대(清代)의 《음운천미(音韻闡微)》(1726) 등 이른바 ‘《절운》계열의 운서’들이 제작되었다. 이들 운서들은 모두 통일 왕조의 ‘독음통일(讀音統一)’이라는 정치적 수요를 이루기 위해선 왕도(王都) 중심의 지방음을 제압하는 아음(雅音)이어야 했고, 성현들의 본의를 이해하기 위해 고음(古音)과도 소통되어야 했다. 운서에서 표준화하고자 한 음은 일상 언어의 음이 아니라 ‘독서음(讀書音)’, ‘문언음(文言音)’ 등으로 불린 인공적인 지상(紙上) 음계였다. 그러므로 이들 운서에서 반영하는 글자음 체계는 실제 당시의 말소리 체계에 합치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글자음 체계는 말소리 체계보다 상위 체계로서 말소리 체계와 다를수록 더욱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수대(隋代)의 《절운》(601년)에서 청대(清代)의 《음운천미(音韻闡微)》(1726) 까지<sup>31)</sup> 천 년 이상의 하세월 동안 어음의 변화를 극소화시켜서 계승되었는데 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어음에 대한 사유방식이 집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운서 제작의 배경과 취지를 되새겨볼 때, 《절운》계열의 운서에 제작 시기의 음운체계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한편 남송(南宋)의 정초(鄭樵, 1104~1162)는 ‘운도(韻圖)’의 제작 원리 및 방법은 서역에서 전해졌다고 밝혔듯이,<sup>32)</sup> 둔황(敦煌)에서 출토된 《수

31) 김태완·양만기(2004), <《음韻闡微》의 音韻 體系와 清代 官話>, 중국인문학회: 《中國人文科學》 제28호.

32) 정초(鄭樵), 《통지(通志)》<칠음략(七音略)>: “칠음은 서역에서 일어나서 중국에 전래되었다. 인도의 승려는 불교를 중국에 전파하고자 하여 운도를 만들었다. 비록 거둬 번역하여도 미치지 않고 어떤 글자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운도에 의해) 바로 음과 의미가 전해질 수 있었다. 중국의 승려가 이에 따라 36개 자모를 정하고 개합과 청탁을 정하되 그 운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운운학잔권(守溫韻學殘卷)을 비롯하여 대부분 ‘운도’는 승려들에 의해 지어졌다. 특히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자음과 모음 및 조합 방법을 나타낸 《실담장(悉曇章)》은 저작 시기 및 성모, 운모의 배열 방법으로 미루어 볼 때, ‘운도(韻圖)’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광(智廣)의 《실담자기(悉曇字記)》에 의하면, 산스크리트어의 자음[체문(體文)]은 발음 부위에 따라 아(牙)·치(齒)·설(舌)·후(喉)·순(脣)의 오류성(五類聲)으로 구분하고 발음 방법에 따라 ‘무기무성음-유기무성음-무기유성음-유기유성음-비음’으로 분류하였다.<sup>33)</sup>

산스크리트어의 자모(devānagari)는 무기유성음과 유기유성음을 분류하였으나, “운도”에서는 유성음을 두 종류로 나누지 않고 ‘무기무성음-유기무성음-무기유성음-비음’으로 구분하여 36자모(字母)를 설정하였다.

발음방법 발음부위		무기무성음	유기무성음	무기유성음	비음
牙音		見	溪	群	疑
舌音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脣音	重脣音	幫	滂	並	明
	輕脣音	非	敷	奉	微
齒音	齒頭音	精/心	清	從/邪	
	正齒音	照/審	穿	床/禪	
喉音		影/曉		匣	喻
半舌音					來
半齒音					日

않았으니 천지 만물의 음이 이에 갖추어지게 되었다.(七音之作, 起自西域, 流入諸夏, 梵僧欲以其教傳之天下, 故爲此書. 雖重百譯之遠, 一字不通之處, 而音義可傳. 華僧從而定三十六爲之母, 重輕清濁, 不失其倫, 天地萬物之音備於此矣.)”

33) 이 도표는 《불광대사전(佛光大辭典)》 5권, 서목문헌출판사(書目文獻出版社), 1989, 4565~4569쪽에 기재된 도표를 편집한 것이다. 심소희(2013), 《한자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65쪽 재인용.

그 외 “운도”의 각종 개념과 용어들은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사등(四等)’은 산스크리트어의 사분법(四分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며,<sup>34)</sup> ‘전(轉)’은 운도에서 성모와 운모가 결합한다는 의미인데, 산스크리트어에서도 체문(體文, 자음)과 마다(摩多, 모음)가 어우러져 새로운 글자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자륜품(字輪品)’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轉)’의 의미이다. 또 불경에서 ‘섭(攝)’은 ‘총괄하다’, ‘모으다’의 의미인데, “운도”에서는 운미가 같고 주요 모음이 같거나 비슷한 운을 16섭(攝)으로 귀납하였다.

그리하여 《절운(切韻)》계열 운서의 ‘반절(反切)’은 《운경(韻鏡)》과 《칠음략(七音略)》의 운도에서 ‘43전(轉)’에 구현되었고, 《사성등자(四聲等子)》,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에서는 ‘16攝’으로 귀납되어 20개의 도표에 구현되었는데 모두 《광운》의 운목(韻目)과 36자모(字母)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운도들은 모두 작자와 제작 연대가 불투명하다. 대부분 승려들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히 누구에 의해,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아마도 호승(胡僧)들이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스크리트어의 격식에 한자를 대입하여 ‘운도’를 만들었을 수 있고,<sup>35)</sup> 이렇게 제작된 운도는 중국 승려들이 산스크리트어를 익히는 데에 긴요한 참고서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불교도들은 성명(聲明, 범어의 어법)을 배울 때 반드시 음운을 연구해야 했고, 더욱이 당대(唐代) 유행했던 밀교(密敎)에서는 교의적으로 언어에 매우 높은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가에서 전래된 운도들은 대다수 소실되어 송대(宋代)의 목록학 저작에 몇 개의 책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34) 알렌(ALLEN, W. S)의 《고대 인도의 음성학(Phonetics in Ancient India)》에 따르면 범어학에서는 구강의 폐쇄도에 따라 ① Contact, ② Slight contact, ③ Slight openness, ④ Openness(또는 ① Contact, ② Slight contact, ③ Half contact, ④ Non-contact)로 음을 사분(四分)하였다.

35) 尾崎雄二郎, 〈漢語史における梵語學〉, 《中國語音韻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0, 77-99쪽.

도리어 불가에서 전해진 음운이론과 언어사상은 북송시기 성리학(신유학)이 성립되면서, 성리학자들이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당시 성리학자들은 표면적으로 도·불 배척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도교와 불교의 심오한 철학 체계를 융합하여 유가 경전 중에서 특히 《주역》을 재해석하여 우주의 생성질서에 관한 사상체계를 천명하였다. 특히 “북송오자(北宋五子)”<sup>36)</sup>로 추송받았던 소옹(邵雍, 1011~1077)은 수(數)를 통해 우주의 생성과정과 만물의 이치를 구현하였는데 그는 만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색깔(色), 소리(聲), 기운(氣), 맛(味)” 중에서 소리(聲)가 수리적으로 측정하기에 용이하므로 소리(聲)를 통하여 만물의 개수를 추산하고 이를 통해 만물의 이치를 파악하였다.<sup>37)</sup>

소옹은 스승 이지재(李之才)로부터 전수받은 상수역학(象數易學)과 부친 소고(邵古)에게 습득한 불교의 어음지식으로 세상 모든 음의 생성 원리를 담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성음창화도(聲音唱和圖)〉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만이 ‘성어(聖語)’라는 불교의 언어사상을 능가하는 유교 본위의 언어사상이 담긴 업적이었고, 소옹은 산스크리트어까지도 포함하는<sup>38)</sup> 세상의 모든 음을 포용하는 음운체계를 구현하였다.

이후 《황극경세서》〈성음창화도〉는 소옹이 ‘북송오자’라는 영예와 함께 후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오늘날 전해지는 명청(明清) 시기에 제작된 약 120여 종의 운도들은 저자의 자술(自述)과 자료 분석을 통해 볼 때,

36) 북송오자(北宋五子)는 소옹(邵雍, 1011~1077),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장재(張載, 1020~1077), 정호(程顥, 1032~1085), 정이(程頤, 1033~1107)를 가리킨다.

37) 이창일(2014), 『소강절의 철학』, 예문서원, 315-318면.

38) 《황극경세서》〈성음창화도〉에는 ‘무기유성음’과 ‘유기유성음’로 설정하고, 비음과 변음도 성조를 이용하여 ‘무성-비/변음’과 ‘유성-비/변음’으로 구분하였다. 소옹이 중국어 음운체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이러한 음소를 설정한 것은 부친 소고(邵古)로부터 산스크리트어를 체득하여 산스크리트어의 음운 체계도 고려한 정음체계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沈小喜, 〈〈皇極經世聲音唱和圖〉聲母體系的再構擬〉,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ESSAYS ON LINGUISTIC(語言學論叢)》 第49輯, 2014.

모두 소옹의 《황극경세서》〈정음창화도〉을 모범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다. 운도의 저자들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각자의 학술적 견지에 따라 만물 생성 원리에 근거한 세상의 말소리 체계를 구현하였다. 그들은 결코 어느 한 지역의 방언이 아닌, 남북 방언을 절충하고 고급음을 참작한 음을 ‘정음’이라고 여겼다. 반퇴(潘耒, 1646~1708)는 자신이 저술한 《유음(類音)》의 체계가 ‘남방음도 아니고 북방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음으로서 천하의 음을 모두 나타내었고 천하의 모든 음이 갖추어졌다(非南音非北音乃人人本有之音也, 天下之音盡矣, 天下之音備矣)’라고 하였고, 노내선(勞乃宣)은 《등운일득(等韻一得)》(1883)의 체계가 ‘천하의 음을 모두 갖추었다[天下之音備矣.]’고 자평하였다. 그 외, 서효(徐孝)는 《중정사마온공등운도경(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1603)이 ‘화음과 오랑개 음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음[華夷世音]’을 포괄한다고 하였고, 여곤(呂坤)은 《교태운(交泰韻)》(1603)이 ‘남방과 북방의 오랑개 음을 막론하고 맞지 않는 것이 없다[南蠻北狄, 無不暗合].’라고 주장하였으며, 번등봉(樊騰鳳)은 그의 저작 《오방원음(五方元音)》이 이름 그대로 ‘오방(五方)의 원음(元音)’이라고 하였다.<sup>39)</sup>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정음(正音)’이란 고운서(古韻書)에도 부합되고, 또 오방(五方)의 방언에 두루 통하는 음이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물론 운도 저자가 갖춘 심음 능력과 음운에 대한 소양에 따라 운도가 달리 편성될 수 있겠지만, ‘운도’의 저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운도’가 세상의 모든 음을 포괄한다고 자칭하였다.

이와 같이 복고를 지향하였던 시대 · 학술적 분위기에서 과연 ‘운도’에 운도 저자의 출신지역 방언 요소가 삽입되었을까? 다시 말해, ‘운도’의 저자들은 자신의 방언음을 근거하여 ‘운도’를 제작하였을까? 오늘날 학자들은 음양수리(陰陽數理)를 밝히기 위한 저술되었던 ‘운도’ 저자들의 성리학

39) 번등봉(樊騰鳳), 《오방원음(五方元音)》: “一元有十二會, 一運有十二世, 一世有十二月, 一日有十二時, 日月一年有十二會, 黃鍾一年有十二律, 韻亦十二, 出于自然, 增之不可, 減之不可, 謂非天地之元音亦不可.”

적 관점보다는 ‘운도’에 담겨있을 듯한 어음체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옹의 《황극경세서》〈성음창화도〉의 음운체계를 재구하는 데에 있어서, 주조모(周祖謨)는 소옹의 본적이 범양(范陽)이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공성(共城)으로 이사한 후 주로 하남(河南) 지역을 30여 년간 주유하였다는 사실에 주의하여 소옹의 어음은 낙읍(洛邑) 방언이고 낙읍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당시 송의 수도 변양(汴梁)의 어음도 낙읍 방언과 비슷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0)</sup> 또한 야혼토프(S. E. Yakhontov)도 소옹의 조적(祖籍)이 북경에서 남쪽으로 몇 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범양(范陽)인데 소옹이 30세가 되던 해에 낙양(洛陽) 부근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것에 주의하여, 우리가 어릴 적에 습득한 어음의 특징은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기 마련이므로 《황극경세서》〈성음창화도〉에는 낙양 방언음이 아닌 북경 방언음의 특징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1)</sup> 이에 耿振生(1992)은 명청시기에 제작된 운도들을 작가의 출생지와 성장 지역에 따라 ‘관화방언구’와 ‘남방방언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up>42)</sup>

결론적으로 불경과 아울러 수입된 산스크리트어의 어음이론은 ‘반절(反切)’의 탄생과 ‘운서(韻書)’ 및 ‘운도(韻圖)’ 제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북송시기 성리학이 성립되면서 세상 만물의 형성 원리에 따라 정음체계를 고구할 때, 어음원리는 더할 수 없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성리학자들은 학문적 견지에 따라 정음사상을 구체화시켜 인도의 언어사상을 필적하는 ‘운도(韻圖)’를 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헌학적인 배경을 고려해볼 때 운도에서 저자의 출생지 방언의 어음 단서를 찾는 것은 대단히 건강부회적인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0) 周祖謨, 〈宋代汴洛語音考〉, 《問學集》 下冊, 北京: 中華書局, 1942, 581-655 쪽.

41) 雅洪托夫, 〈十一世紀的北京音〉, (《漢語史論集》), 唐作藩·胡雙寶 選編, 北京大學出版社, 1986.) (원제: S.E.Yakhontov, Research on history of Chinese Language, 1980)

42)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北京: 語音出版社, 1992.

#### IV. 조선에 변용된 정음사상

오늘날 우리는 ‘세종이 창제한 글자’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부르지만,<sup>43)</sup> 조선시기에는 주로 ‘언문’이라고 불려왔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언문’은 다수 검색되지만, ‘훈민정음’은 10회 기사에만 출현하고 주로 서명(書名)으로 사용되었다.<sup>44)</sup> 이는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에 집현전 학자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로 사육신(死六臣)으로 숙청당하였고, 세조에 동조하여 살아남은 학자들도 명분과 의리에서의 약점 때문에 정음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 시기에는 ‘뜻글자’인 “한자”가 주류의 공식 문자였고 ‘소리글자’인 “언문”은 비주류의 비공식 문자였기 때문에 폄하의 의미가 더해져서, 그저 ‘소리글자’는 ‘언문’이라고 불려왔다.<sup>45)</sup>

- 43) 《표준국어대사전》에 ‘훈민정음’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언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 2. [역사]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주로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시기에는 [역사] 서적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 44) <세종실록>: ①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② 세종 28년(1446) 9월 29일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御製)와 정인지의 서문, ③ 세종 28년(1446) 12월 26일 ‘이과(史科)와 이전(史典)의 취재(取才)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④ 세종 29년(1447) 4월 20일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⑤ 세종 29년(1447) 9월 29일 ‘《동국정운》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세조실록>(3회): ① 세조 6년(1460) 5월 28일 ‘예조에서 《훈민정음》·《동국정운》·《홍무정운》을 문과 초장에서 강할 것등을 아뢰어 따르다’ ② 세조 6년(1460) 9월 17일 ‘예조에서 국학의 구제(九齋)의 단계를 뛰어 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여 이를 따르다’ ③ 세조 10년(1464) 9월 21일 ‘예조가 성균관의 구제의 법을 참정하고 아뢰다’, <성종실록>(1회): ① 성종 13년 임인(1482) 2월 13일(임자)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 <정조실록>(1회): ① 정조 7년(1783) 7월 18일 기사 ‘수레·벽돌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게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실되어 제자(制字)의 기본 취지나 제자원리 등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세종실록》의 세종 25년(1443) 12월 30일자 기사<sup>46)</sup>와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기사<sup>47)</sup>에 출현하는 “자방고전(字倣古篆)”의 문구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논란의 요점은 ‘훈민정음이 과연 어떤 문자를 참고하였는가?’이다. 이익(李翼, 1681~1763)<sup>48)</sup>과 유희(柳僖, 1773~1837)<sup>49)</sup>는 ‘언문’이 ‘몽고문자[파스파문자]’에

45)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언문(諺文)”을 “예전에, ‘한글’을 이르던 말.”로 정의하지만, ‘조선 시대에 한글을 낮추어 이르던 말’(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집부(2011), 《한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한글은 저급한 것으로 평민이나 상민, 부녀자들이 쓰는 언어이고, 양반이나 선비들은 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우리말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낮추어 칭하였다.’(《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7.) 등 대체로 ‘한글을 낮추거나 속되게 이르던 말’로 인식하고 있다.

46) 《世宗實錄》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기사: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47) 《世宗實錄》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기사: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에 합하여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48) 《星湖全集》제27권 《答安百順》(1759): “원(元)나라 세조(世祖) 때에 번승(藩僧) 파스파[巴思八]란 자가 불씨(佛氏)의 유교(遺教)를 얻어 몽고(蒙古) 글자를 만들었는데,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 4개의 운(韻)을 순(唇)·설(舌)·후(喉)·치(齒)·아(牙)·반순(半唇)·반치(半齒) 등 7개 음(音)의 모자(母字)에 분속하여 실로 소리가 있는 것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다. 무릇 중국

서 기원한다고 주장하였고, 성현(成俔, 1439~1504)<sup>50</sup>은 ‘언문’과 ‘범자(梵字, 산스크리트 문자)’와의 연관성을 제기하였다. 실상 몽고문자는 티베트 승려인 파스파(Phags-pa, 八思巴)가 티베트 문자에 기초하여 원나라의 말을 나타내기 위하여 네모꼴로 만든 음소문자인데 티베트문자를 참고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티베트 문자는 A.D. 7세기 경 불교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위해 ‘산스크리트 문자’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이다. 결국 산스크리트 문자=티베트 문자=파스파 문자는 같은 계통의 문자인 것이다.<sup>51)</sup>

의 글자는 형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전하고 눈으로 보았으며, 몽고의 글자는 소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전혀 그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그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규례를 미루어 문자를 만들었다면 천하 후세에까지 통용되어 우리나라의 언문과 같은 공효를 이룰 수 있었을 터이니, 또한 아마 이 밖에는 다른 문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언문의 기원이다.(元世祖時藩僧巴思八者得佛氏遺教。製蒙古字。分唇舌喉齒牙半唇半齒七音之母字。苟有其音者。一無所遺。凡中國之字。以形爲主。故人以手傳而目視。蒙古以聲爲主。故人以口傳而耳聽也。然全無其形。又何能傳而不泯。而無以得其詳。若推例爲文字。可以通行於天下後世。與我之諺文同科。抑恐外此更無其物也。此諺文之所祖也。)”

- 49) 《언문지(諺文志)》: “언문은 비록 몽고문자에서 비롯되었지만 우리 동방에서 이루어져서 실로 세상의 지극히 기묘한 것으로서 문자에 비견된다.(諺文雖辨於蒙古, 成於我東, 實世間至妙之物, 比之文字)”
- 50) 《용재총화(慵齋叢話)》: “세종께서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속주와 성삼문 등에 게 명하여 언문을 만들게 하였다. 언문은 처음에 종성이 8자, 초성이 8자, 중성이 12자로 글자의 모양은 범자를 본떠서 만들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말과 글자 중에 기록할 수 없던 것도 모두 통해 막히는 것이 없었다.(世宗設諺文廳, 命申高靈成三問等製諺文, 初終聲八字 初聲八字 中聲十一字, 其字體依梵字爲之, 本國及諸國語音文字, 所不能記者, 悉通無礙)”
- 51) 본고의 도표는 산스크리트문자-티베트문자-파스파문자의 자형을 비교하기 위해 UNICODE([https://unicode.org/charts/nameslist/n\\_A840.html](https://unicode.org/charts/nameslist/n_A840.html))와 LEXILOGOS(<https://www.lexilogos.com/english/index.htm>)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ka	kha	ga	gha	nga	ta	tha	da	dha	na
산스크리트문자 [梵文]	क	ख	ग	घ	ङ	त	थ	द	ध	न
티베트문자	ཀ	ཁ	ག		ང	ཏ	ཐ	ད		ན
파스파문자 [蒙古文]	᠎ᠠ	᠎ᠠ	᠎ᠠ		᠎ᠠ	᠎ᠠ	᠎ᠠ	᠎ᠠ		᠎ᠠ

pa	pha	ba	bha	ma	tsa	tsha	dza	ha
प	फ	ब	भ	म				
ᠫ	ᠫ	ᠪ		ᠮ	ᠲ	ᠳ	ᠵ	ᠬ
ᠯ	ᠯ	ᠯ		ᠮ	ᠲ	ᠳ	ᠵ	ᠬ

조선 후기의 대학자들이 ‘언문’을 ‘범문’과 ‘몽고문’에 연관시킨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문의 제자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언문’이 ‘범문’ 또는 ‘몽고문’처럼 표음문자이고,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고려하여 자모가 설정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방고전(字倣古篆)’의 ‘고전(古篆)’은 한자의 서체(書體) ‘전서체(篆書體)’<sup>52)</sup>라는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sup>53)</sup> 조종(祖宗)부터

52) 《한글글꼴용어사전》 “전서체(篆書體)”: 한자의 대표적인 5개 서체인 전, 예, 해, 행, 초서체 가운데 먼저 생긴 서체이다. 전서는 전국시대 주나라 시기에 생긴 대전(大篆)과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승상 이사(李斯)에게 지시하여 제정한 소전(小篆)이 있다. 소전체는 복잡한 대전을 간략하게 한 것인데, 이 소전을 전서라고 흔히 말한다. 금석문이나 전각문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긴 이 글꼴은 서선 굵기가 일정하고, 수직, 수평 방향으로 운필하였으며, 사각자형을 이룬다.

53) 《조선왕조실록》에 “篆書” 또는 “篆文”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글자체’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종 18년(1418) 5월 7일 기사: “진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 정구(鄭矩)가 졸(卒)하였다. 정구는 …… 예서(隸書)·초서(草書)·전서(篆書)를 잘 썼다.” 태종 14년 갑오(1414) 10월 14일 기사: “충주(忠州)의 돌을 취하여 쪼아서 인(印)을 만들고, 전문(篆文)은 바로 저화(楮貨)의 전자(篆字)와 부적(符籙)의 글자 모양을 본뵈었습니다.” 등.

지성으로 중화 제도를 준행해왔고<sup>54)</sup>, 모든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줄만한<sup>55)</sup> 조선에서 범문(梵文)이나 몽고문(蒙古文) 등 이적(夷狄)의 문자를 참고하여 세종이 언문을 창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만리(崔萬理, ?~1445)가 <언문창제반대 상소문>에서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습니다.”<sup>56)</sup>라고 역설하였는데, 그는 ‘전서(篆書)를 모방한 언문의 형상’은 용인하겠지만, ‘음으로 글자를 이루는(用音合字)의 제자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근거하여, ‘전서를 모방한 언문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는 언문이 글자당 하나의 음절을 갖춘 한자의 ‘음절문자’의 특성을 참조하였다는 의미인 듯하다. 즉 한 개의 한자는 대부분 하나의 음절과 대응하므로 한 개의 언문이 하나의 음절과 대응하려면 초성·중성·종성의 말소리를 ‘모아쓰기’ 해야 한다.<sup>57)</sup> 세상의 모든 음소 문자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언문만이 음절문자인 전서(篆書)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하여 언문 한 개의 글자당 하나의 음절을 이루어 네모꼴의 형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1940년 경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sup>58)</sup> <제자해(制字解)>, <초성

54)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 기사: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55) <세종실록>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기사: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이 중국에 견주된다.(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56)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 기사: “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57)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 음절을 성모(聲母)와 운모(韻母)의 이분법(二分法)으로 구분하였는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의 삼분법(三分法)으로 구상한 것도 상당히 독창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기(1996), <삼분법의 형성 배경과 훈민정음의 성격>, 한글학회: <한글> 제233호, 5-68쪽.

58) <훈민정음 해례본>은 <어제서문(御製序文)>, <예의(例義)>,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 <용자례(用字例)>, <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서문(御

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 <용자례(用字例)>에 적시된 ‘훈민정음’의 제자 취지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제자해(制字解)>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말소리의 생성원리에 적용시켜서 ‘언문’이 이러한 보편적인 말소리의 생성 이치에 따라 세상의 모든 말소리를 담아내고자 창제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sup>59)</sup> 그리고 말소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sup>60)</sup>, 말소리가 발생한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화되는지<sup>61)</sup>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해당 말소리의 글꼴에 대한 제자(制字) 방식을 밝혔다. 즉 <제자해(制字解)>에서는 발음부위

製序文), <예의(例義)>과 <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기사에 실려 있어서 그동안 ‘훈민정음’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 수 있었다.

- 59) 《훈민정음해례본》<제자해>: “하늘과 땅의 도는 오로지 음양오행일 뿐이다. 곧괘와 복괘 사이가 태극인데 이 태극이 움직이고 멎고 한 다음에 음과 양이 생겨나는 것이다. 무릇 천지간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사람의 말소리에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으나 사람들이 이를 살피지 못하는 것 뿐이다. 지금 훈민정음을 만듦에 애초에 지혜를 부려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말소리에 따라 그 이치를 다 한 것일 뿐이다.(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今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 60) 《훈민정음해례본》<제자해>: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은 모두 28자로서 발음 기관과 삼재(天·地·人)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초성자는 모두 17자이다.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음(舌音, 혀소리) 글자 ㅋ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순음(唇音, 입술소리) 글자 ㅁ은 입 모양을, 치음(齒音, 잇소리) 글자 ㄷ은 이 모양을,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글자 ㅇ(옛이음)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初聲凡十七字。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ㅋ，象舌附上升之形。唇音ㅁ象口形。齒音ㄷ，象齒形。喉音ㅇ，象喉形。)”
- 61) 《훈민정음해례본》<제자해>: “이들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어지면 그에 따라 기본 자에 획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었다. ㅋ은 ㄱ에 비해 소리가 조금 세므로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ㄴ에서 ㄷ, ㄷ에서 ㄸ, ㅁ에서 ㅂ, ㅂ에서 ㅃ, ㅅ에서 ㅆ, ㅅ에서 ㅈ, ㅇ에서 ㅎ, ㅎ에서 ㆁ을 만든 것이 모두 소리가 세어지는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한 것이다. (ㄱ比ㄷ，聲出稍厲，故加畫。ㄴ而ㄷ，ㄷ而ㄸ，ㅁ而ㅂ，ㅂ而ㅃ，ㅅ而ㅆ，ㅅ而ㅈ，ㅇ而ㆁ，ㆁ而ㆁ，其因聲加畫之義皆同)”

인 ‘아(牙)·설(舌)·순(脣)·치(齒)·후(喉)’를 상형하여 ‘ㄱ, ㄴ, ㄹ, ㅅ, ㅇ’의 기본자를 만들었고, 발음방법에 따라 가획하는 방식으로 ‘ㄱ → ㅋ, ㄴ → ㄸ → ㅌ, ㄹ → ㄴ → ㄷ, ㅅ → ㅆ → ㅈ, ㅇ → ㆁ → ㆅ’ 등의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제자 방식은 앞서 《실담장(悉曇章)》을 통해 전래된 범문에서 제시하는 음운이론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2)</sup>

또한 세종 원년(1419년)에 직수입한 《성리대전》(1415년) 7~13권에는 〈황극경세(皇極經世) 성음창화도(聲音唱和圖)〉가 게재되어 있는데, 저자 소옹(邵雍, 1011~1077)은 말소리의 생성 원리에 근거하여 천성(天聲) 160개, 지음(地音) 192개를 산출한 후, 천성과 지음이 곱하여 생성되는 “30,720개”음이 천지간의 정음의 총수라고 하였다.<sup>63)</sup> 세종은 소옹이 제시한 ‘30,720개’를 정음(正音)의 총수로 인식하였지만, 세종은 “30,720개”의 글자꼴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한 기본자 “28개”를 “전환무궁(轉換無窮)”<sup>64)</sup>시켜서 세상의 모든 말소리 체계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기본자 28자”에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의 음리를 적용시키면 세상의 어떤 말소리라도 합당한 글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sup>65)</sup> 그리하여 ‘한자음’뿐만 아니라 ‘조선의 말소리’도 섬세하게 표음해낼 수 있었고, 중국어 특유의 말소리를 위해 ‘ㅈ, ㅊ, ㅅ’와 ‘ㅉ, ㅄ, ㅆ’의 글꼴도 만

62) 세종이 운도에 실린 산스크리트어의 음운이론을 접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태종실록》태종12년(1412) 8월 7일 기사: “사관(史官) 김상직(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 사고(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오음지장도(五音指掌圖)》·《광운(廣韻)》…… 등의 책이었다.”

63)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장하다, 소옹의 성음학은 곧 그의 가전(家傳)으로서 이천장인(伊川丈人)에게서 얻은 것이지, 이를 모조리 이정지(李挺之, 지재(之才))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嗚呼, 邵子之聲音之學, 乃自其家傳, 得之伊川丈人者, 不盡于李挺之也.)”

64)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65) 심소희, 〈상수역학(象數易學)으로 풀어낸 훈민정음의 말글체계〉, 한국고전번역원: 《民族文化》 53호, 237면, 2019.

들고, 일본어 특유의 말소리를 위해 ‘ㄱ, ㄲ, ㄴ, ㄷ, ㄹ, ㅁ, ㅂ, ㅃ, ㅄ,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등 다양한 글자꼴을 고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세상 만물의 생성 원리에 의해 산생된 정음(正音)을 표음하기 위해 창제된 기본자 28자는, 전환 무극하여 세상의 모든 말소리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종은 《실담장》에서부터 전수 되어온 음운이론인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의 개념을 상형화시켜서 글자꼴을 창제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의 수용 및 변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 V. 결론

문화는 각기 고유한 사유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체의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과학, 문학, 종교 등의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문화 형태를 연구하려면 그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널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언어에 대한 사유 역시 각 문화권마다 깊게 다루어져 특색에 맞게 계승되어 발전해왔으므로 각 문화권별 언어 자료의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는 문헌학적 방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도에서 배태된 정음사상이 중국의 운서(韻書) 및 운도(韻圖)에 수용된 바를 살펴보았고, 조선에서 창제된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변용되는 과정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 정음 사상에 대한 문화 변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된 운서나 운도 등의 어음자료가 어느 지방의 실제 어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작자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음을 포용할 수 있는 기본 음계를 상정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음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된 많은 운도들이 각각 단일 방언의 실제 음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선입견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서세동점 이후,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2

천여 년간 축적해온 고대 동아시아의 정음사상에 대한 오랜 전통을 배격하고 단절시켜온 측면이 없지 않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생성-수용-변용의 과정을 겪은 ‘정음 사상’의 면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토양에서 꽃피운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훈민정음이 위대한 문자라는 점은 세상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2000여 년간 정음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잉태한 인류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라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가치를 더욱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용, 《빠니니 읽기—인도 문법전통의 이해》, 서울: 한길사, 2011.
- 김형엽, 《인간과 언어-언어학을 통해 본 서양철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불교문학과 불교언어》, 서울: 이회문화사, 2002.
- 박명식, 《세계화와 동·서양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과주: 태학사, 2000.
- 신익성, 《홉볼트의 언어와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심소희, 《한자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 윤희조, 《불교의 언어관》,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2.
-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서울: 통나무, 2000.
- 鎌田茂雄 지, 장휘옥 역, 《中國佛敎史》, 서울: 장승, 1992.
-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北京: 語音出版社, 1992.
- 萬繩楠, 《魏晉南北朝文化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 김형엽, 〈인도의 언어이론과 파니니〉, 국제언어인문학회: 《인문언어(Lingua Humanitatis)》 Vol.2, 2001.
- 심소희, 〈상수역학(象數易學)으로 풀어낸 훈민정음의 말글체계〉, 한국고전

- 번역원: 《民族文化》 53호, 2019.
- 이지수, 〈불교의 언어관-언어에 대한 철학적 성찰〉, 《과학사상》 35호, 서울: 범양사, 2000.
- 최종찬, 〈빠니니의 《아슈파다이》: 구성적 특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 연구소: 《남아시아연구》 제16권 2호, 2010.
- 沈小喜, 〈〈皇極經世聲音唱和圖〉聲母體系的再構擬〉,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ESSAYS ON LINGUISTIC(語言學論叢)》 第49輯, 2014.
- 岑麒祥, 〈古印度人對於語言的看法和語法分析〉, 《語言學史概要》, 北京大學出版社, 1988.
- 周祖謀, 〈宋代汴洛語音考〉, 《問學集》 下冊, 北京: 中華書局, 1942.
- 尾崎雄二郎, 〈漢語史における梵語學〉, 《中國語音韻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0.

### <Abstract >

This paper recognizes the structure of speech sounds while contacting the heterogeneous Sanskrit language in East Asia, and reviews the process of creating phonetic characters as the concept of speech was imported into Joseon.

In order to properly identify phonetic characters created through these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a macroscopic view of the entire East Asian civilization is needed beyond the “modern” point of view.

“Modern times” requires a nation to be composed of a single ethnic group, objectifying the “Han people” as a single ethnic group in China. However, the “Han people” are constructed with ancient multiracial

communities. In addition, “Modern times” asks a country to have only one language, but East Asia had used “Chinese characters” that embrace both the “difference” and “change” in their pronunciation and had pursued an artificial and ideal phonological system that can be used beyond time and space.

Eventually, East Asia was a cultural community in which each member played a role in the cultural development of East Asia. To expand and enrich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in the future, comprehensive discussions beyond “Modern times” are needed.

Key Words : 산스크리트어(Sanskrit), 베다(Veda), 실담장(Sildamjang), 운서  
(Rhyme book), 한자(Chinese characters), 훈민정음(Hunmin-  
jeongeum)